

# Philosophy, Life & Art

철학, 삶 그리고 예술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김상현

# 근대 독일 관념론의 대표적 철 학자와 그 저서는?

# Modern German Idealism

## 근대 독일 관념론

- 대표적인 철학자는?  
I. 칸트, 피히테, 셸링, 헤겔
- 활동시기는?  
18세기말 ~ 19세기 초
- 대표저서
- 헤겔: <정신현상학>, <논리학의 학>, <철학 백과사전>, <헤겔미학> 등
- 셸링: <철학의 원리로서의 자아에 관하여>,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 <예술철학> 등

# Modern German Idealism

## 근대 독일 관념론

- 피히테: <지식학>, <독일국민에게 고함>
- 칸트
  - <순수이성비판>: 인식론 및 존재론, 진(眞 verum)
  - <실천이성비판>: 윤리학, 선(善 bonum)
  - <판단력비판>: 미학 및 자연철학, 미(美 pulchrum)

Modern 또는 Modernisms이란?

# Modern, Modernism?

- ‘새로운’
- 데카르트 또는 베이컨에 의해 시작된 이성중심주의 철학사조를 대표하면서 시대와 중첩하여 사용하는 말
- 이성중심주의
- 주체중심주의
- 형이상학과 인식론
- 진리와 정의의 준거점이 인간이성(주체)에게 있다는 사유체계 전체를 일컫는 말

# Idealism, 관념론? 이상주의?

- Idea
  - ideren(보다)에서 파생된 명사
  - Platon 철학의 핵심개념: 사물/대상의 가장 완전한 상태 혹은 그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
- 이상주의
  - 가장 완전한 어떤 것에 의해 현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태도/사유방식
- 관념론
  - 대상의 존재가 모두 주관적 관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사유방식 cf) 실재론

왜 우리는 미를 추구하는가?

왜 우리는 미학 혹은 예술철학에 관심을 가지는가?

# 미학, 예술철학의 중심문제들

Core problems of aesthetics & philosophy of art

- 미 pulchrum와 진 verum의 관계
  - 진리와 가상, 실재와 현상
  - 세계질서, 사회,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방식
- 선 bonum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와 도덕적 관계
- 미 관념의 변화

# 현상과 실재 / 진리와 가상

철학 및 미학의 영원한 주제

Appearance vs Reality  
Truth vs Illusion

# 예술은 가상을, 과학은 진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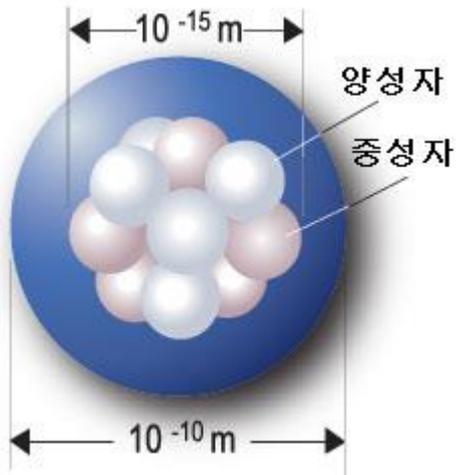
- 과학
  - 자연의 객관적 법칙을 밝힘으로써 보편적 진리를 설명하는 작업?
- 예술
  - 작가의 주관적 경험이나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작업?

# 예술은 가상을, 과학은 진리를?

- 예술: 직관과 상상력, 감성이나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상을 해석/표현
  - 과학: 논리와 이성, 합리적·객관적 설명, 수학과 실험적 검증으로 현상을 해석
- ※ B. 러셀: “예술에서는 천재가 없이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반면에 과학에서는 범재라도 최상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 실재와 진리

눈 앞의 의자는 정말로 의자일까?



- 만약 의자를 빈 공간 없이 가득 채운다면 그 크기는 얼마만해질까?
- 마찬가지로 지구를 그렇게 채운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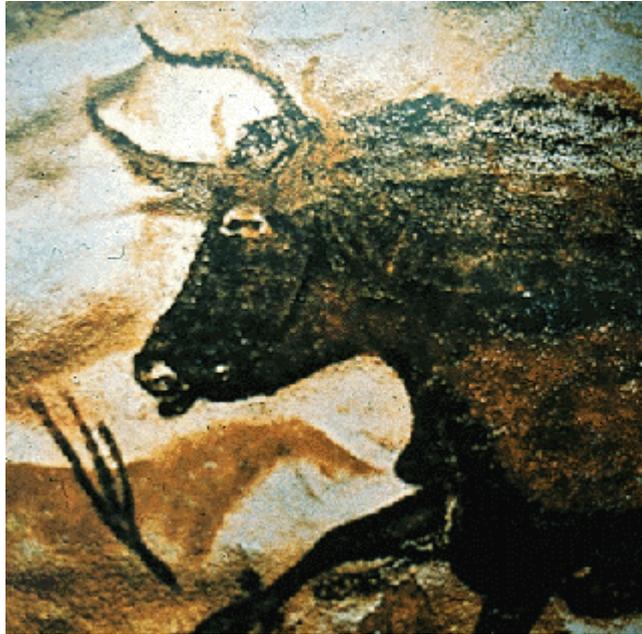
# 공간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 유클리드 기하학
  -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 로바체프스키 기하학
  -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
- 리만 기하학
  -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다

# 무엇을 보는가? 혹은 어떻게 보는가?

- 과학은 객관적 실재를 묘사하고, 예술은 주관적 체험을 묘사한다?
- 만약 과학도 실재에 대한 하나의 설명체계에 불과하다면, 진리의 문제에 관해 예술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질 이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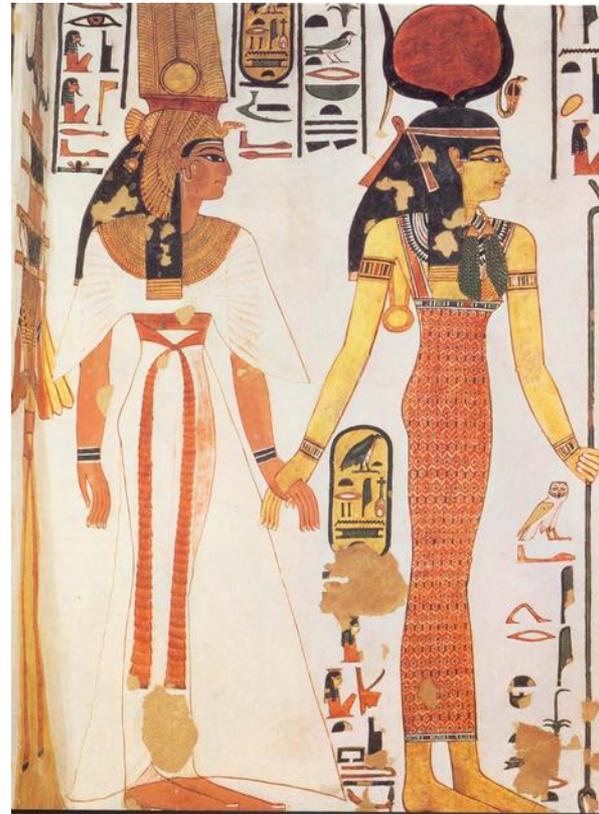
**라스코 동굴벽화  
(1만 5천년 전)**

**구스타프 쿠르베  
The Stone Breakers(돌  
깨는 사람들), 1849년**



※ 선사시대 사람들이 보는  
방식과 19세기 사실주의 화  
가들이 보는 방식은 동일하  
였는가?

이집트인이 구석인보다 열등하였다?



# 인간은 개념체계를 가지고 본다.

- 선사시대 사람들은 생각으로 세계(대상)을 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다
- 하지만 신석기 이후 인간은 생각으로 세계(대상)을 보았고, 그렇게 본 세계를 표현하였다.

※ 예술이 모방활동이라고 해도 반드시 허위와 가상만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진짜일까?

# 실재란 뇌에 의해 해석된 전기신호?



- neo: This isn't real?
- Morpheus: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about your sense, what you feel, taste, smell, or see, then all you're talking about are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 네오: 이게 실재입니까?
- 몰피어스: **무엇이 실재인가?**  
너는 어떻게 실재를 어떻게 정의하지? 만약 네가 말하는 실재가 너의 감각 그러니까 네가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너의 뇌에 의해 해석되는 전기신호일 뿐이야...

# What is Real?

- 정의: 우리의 의식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 그렇다면 과학이 예술보다 더 정확하게(?) 실재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세계질서와 예술

- 전통적으로 예술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술에 의해 표현된 것이 진리의 상징일 수는 있다.
-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예술적 상상력이 이성보다 진리를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 세계가 합목적적 질서를 가졌다는 것은 곧 세계가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 = 세계질서의 본질은 美

# 미(예술)와 도덕의 관계

- Platon : 진선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다. 미는 선의 감각적 현현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미와 도덕을 반드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부도덕도 훌륭한 예술이 될 수 있다.
- 칸트: 미는 도덕성의 상징
- 낭만주의: 미가 모든 것의 최고의 시금석이다.

※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인가?

# 미에 대한 관념의 변화

- 고대 - 객관적인 어떤 것. 미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또는 존재자의 속성
- 근대 - 인식/감정 능력과의 관계 속에서 미를 파악, 즉 주관화의 경향을 가지고 있음. 취미론 등장
- 현대 - 특이성, 독창성, 다양성

※ 니체: “그 자체로 순수한 사실적 사태란 없으며, 단지 여러 해석들만이 있을 뿐이다. 또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세계들이 있는 것이고 이 세계는 살아 있는 개인의 여러 관점일 뿐이다. ...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이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 고전적 미 관념과 삶

Classical idea of beautifulnes & Life

# 그리스 예술과 빙켈만(1717-68)의 구분

- 1. 고(古)양식
  - 페이디아스(bc.490-37) 이전, 통상 아르케익 시대라 함.
  - BC 7세기-5세기 경
- 2. 송고 양식
  - 페이디아스, 미론, 폴리클레이토스가 활동하던 시기, 기원전 5세기-4세기
- 3. 우미 양식
  - 프락시텔레스(BC.390?-30?), 루시포스, 아펠레스, 기원전 4세기-3세기
- 4. 모방 양식
  - 미의 양식 이후 예술이 멸망할 때까지, 로마의 예술

## • 고(古)양식(아르케익 시대, BC 7세기-5세기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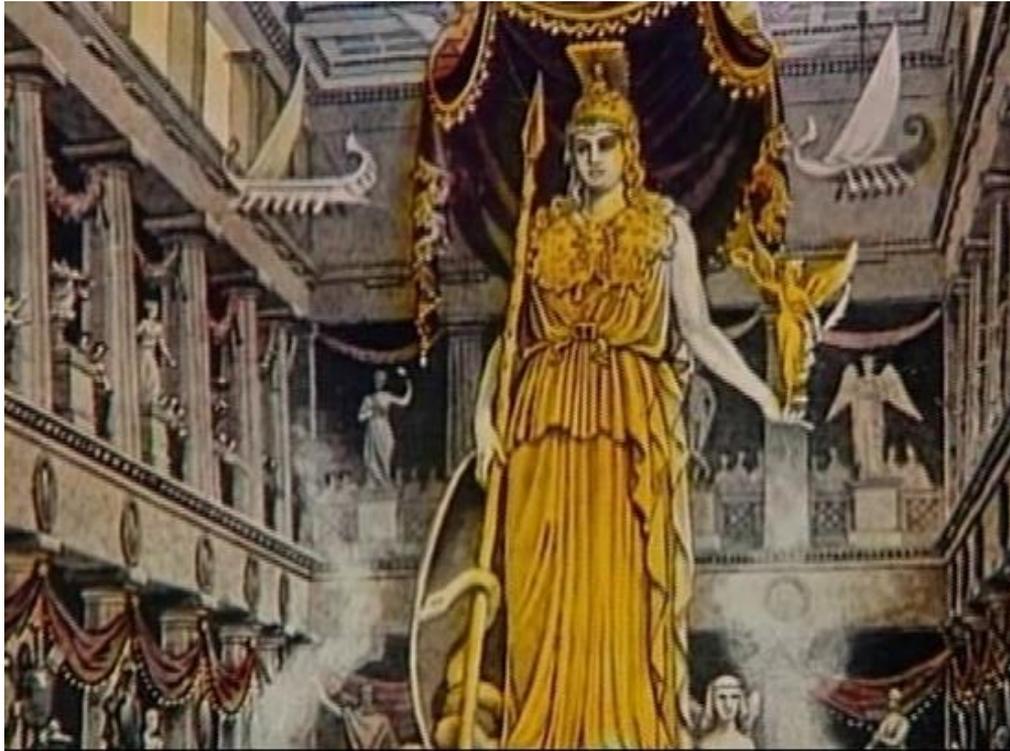
- 대표적인 작품  
- 아르케익의 쿠로이

- 특징

- ① 이집트 예술의 영향을 받음.
- ② 기하학적 대칭
- ③ 엄격함 딱딱함



# 숭고 양식 (BC 5세기-4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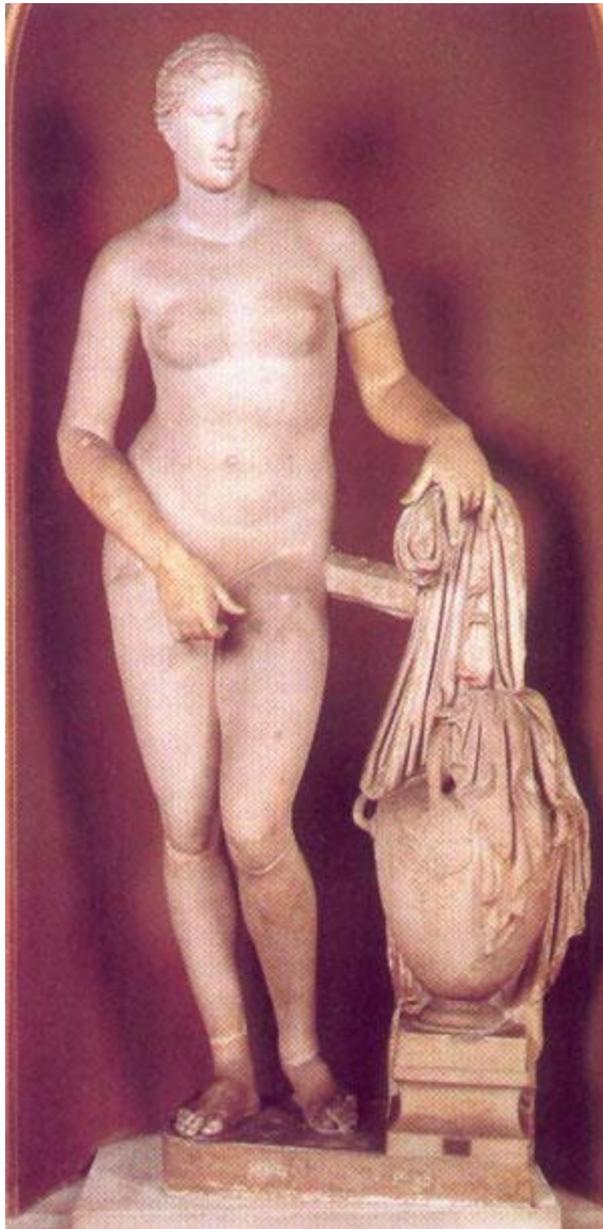


대표작

- 페이디아스-아테나상
- 폴리클레이토스-창을 든 사람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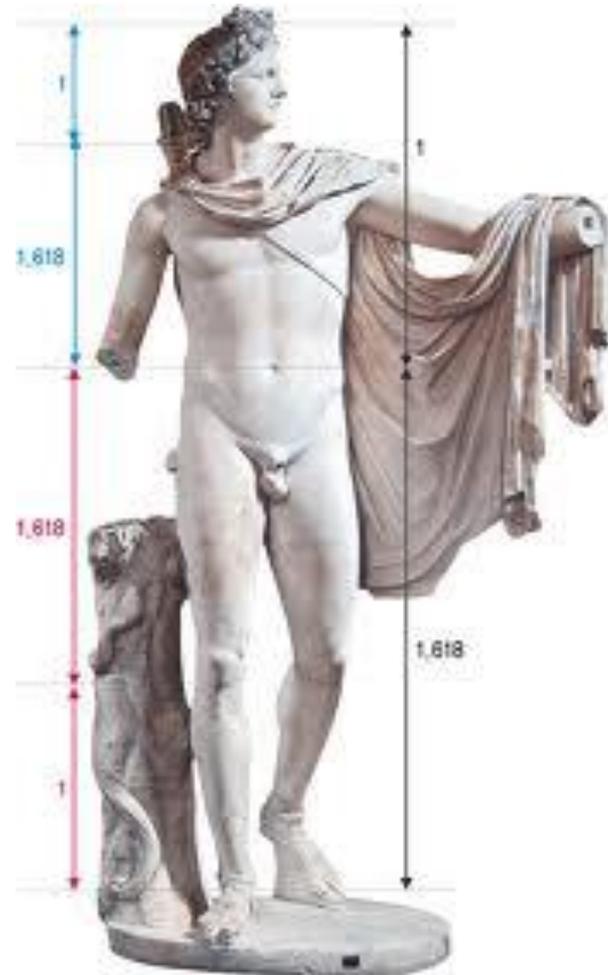
- ① 7등신 비례,
- ② 거대함,
- ③ 역학적인 대칭을 시도: 콘트라포스토
- ④ 숭고함과 딱딱함





# 우미 양식(기원전 4세기-3세기)

- 대표작
  - 프락시텔레스: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 벨베데레의 아폴론
- 평가 및 특징
  - ① 아프로디테: '완전무결한 완성'
  - ② 아폴론: 빙켈만과 괴테는 이를 고전미의 완벽한 표본으로 생각
  - ③ 역학적 비례에 우연적인 요소(현상적인 자연스러움을 연출)를 가미하여 우미의 정점을 이룸



# 모방 양식(미 양식 이후 및 로마의 예술)

- 대표작: 라오콘
- 특징
  - ① 라오콘은 미의 양식과 모방 양식의 중간에 해당
  - ② 점차 비례 관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감각적인 역동성(사실적 표현)에 역점을 두게 됨
  - ③ 로마의 예술은 그리스 예술의 모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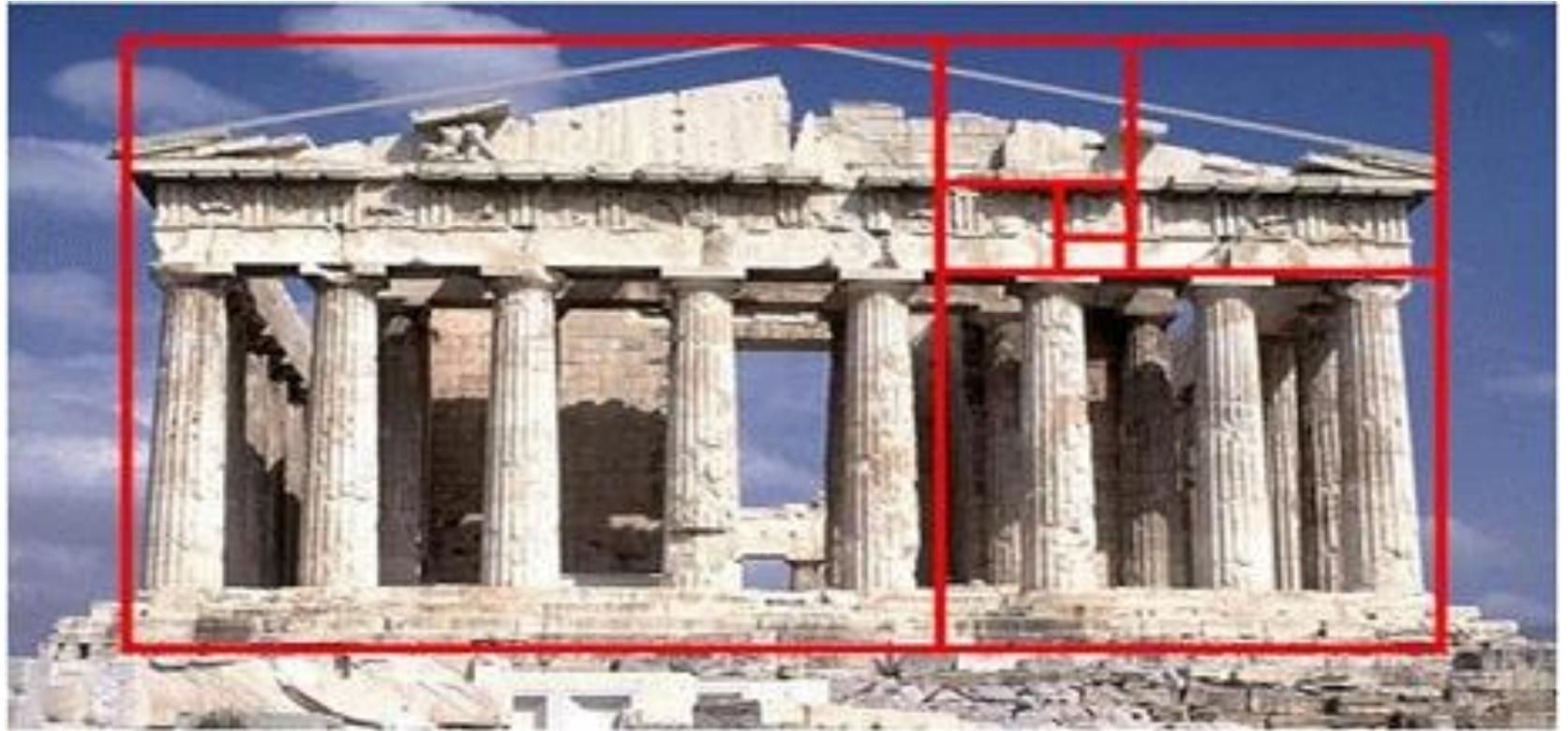
#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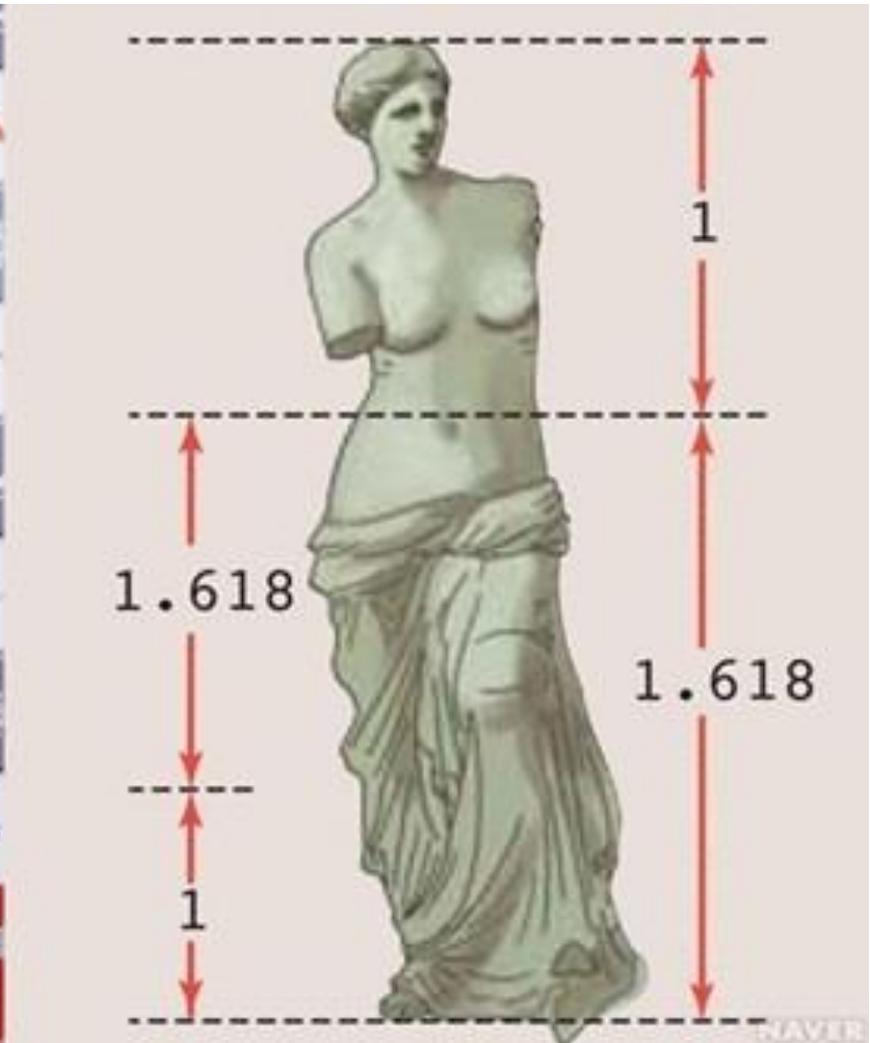
## 인간 사유방식의 변화

- 그리스 미 관념의 변화  
추상 - 이념 - 조화 - 감상성(낭만성)
- 로고스의 발견 및 승리
  - 1) 6등신-7등신-8등신
  - 2) 황금비율(1:1.618)



 비씨카드 블로그\_B씨 스토리





# 진-선-미 삼위일체(이성주의의 등장과 완성)

- 로고스logos: legein(말하다)의 명사형
  - 말, 이성, 섭리, 원리
- 라치오ratio: 로고스의 라틴어
  - 비례, 비율이 원뜻
  - 이성=말=비례를 가진 것으로 사고 방식
- 진/선/미는 항상 조화의 원리(이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
- 진선미는 동일한 로고스가 각각 수학적(이론적)/실천적/정서적으로 표현/이해되는 것

# Platon의 Eros論

Platon's theory of eros



#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 기원전 427-347
-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academia를 창시
- <국가>, <향연>, <변명> 등 대화편들을 저술
- 화이트헤드의 평: “서양 2000년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 동굴의 비유: 존재론(이데아론)
- 노예 소년의 비유: 인식론(상기론/선천주의)

☞ 왜 소크라테스는 성인 한 사람으로 추앙되는가?



# Eros의 탄생 신화

- 신화

아프로디테의 생일 축하연에서 풍요의 신 포로스와 궁핍의 여신 페니아 사이에서 탄생

- 페니아: 결핍과 욕망
- 포로스: 용감과 지혜
- 아프로디테: 미

## SEX, EROS의 기원(아리스토파네스)

- 태초의 인간  
남남, 남녀, 여여의 세 종류가 있었음
- 신에게 대항한 죄로  
남, 남, 남, 여, 여, 여로 분리됨
- ◆ 완전한 존재에서 불완전한 존재/결핍의 존재로
- ◆ 이로 인해 에로스가 등장
- ◆ 에로스는 성적 욕망, 이로 통한 완성욕망을 의미

## Eros의 구분(파우사니아스)

- 세속의 사랑: 신체적 욕구에 집착하는 사랑
- 천상의 사랑: 정신적 고귀함을 깨닫는 사랑
  
- ❖ 세속의 사랑: 성을 가리지 않는 사랑
- ❖ 천상의 사랑: 남성에 대한 사랑
  
- ◆ 남존여비, 동성애(소년애)의 긍정
- ◆ 지혜의 전수와 philia

# Eros: 정신의 질병

- ‘거칠고 짐승같은 부분이어서 수치와 사려를 알지 못하는 한낱 맹목적인 충동에서 지나지 않는 것’
  - ‘욕망에 사로잡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애인을 자기 좋은대로 자신에게 맞추려 한다.’
  - ‘영혼의 독재자’
- Eros는 주체와 객체 모두를 욕망과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노예로 만든다.

#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

- ‘추한 것을 꺼리고 아름다운 것을 선망하는 마음’
- ‘그러나 저속한 애인은 나쁩니다. 그는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머무르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의 사랑 역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 일회적 충동에서 보편적 정신으로의 이행 원동력
- 에로스:
  - 육체적 욕망의 형태로 나타난 정신적 동경

# 육체적 욕망을 선의 원동력이다

- ‘에로스는 가장 큰 선들의 원인이다.
- 도덕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덕목은 ‘용기’
- ‘따라서 내가 장담하건대 사랑을 하는 남자라면 누구든, 수치스런 일을 하다가 들킨다면, ...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소년에게 들킨 것 만큼 괴로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사랑받는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 ‘누구든 아름다운 것을 욕구하는 사람은 또한 선한 것을 욕구하는 것이다.

# 도덕성의 상징으로서 미

- I. Kant

“취미는 자유롭게 활동하는 상상력조차 지성에 대하여 합목적적인 것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또 감각의 자극 없이도 감각의 대상에서 자유로운 만족을 발견할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이를테면 감각의 자극으로부터 관습적인 도덕적 관심으로의 이행을 지나치게 무리한 비약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단순성의 미학 혹은 빛의 상징주의

Aesthetics of Simplicity or  
Symbolism of Shine(Aura)

# 요약: 美란 무엇인가?

- 전통적인(고대적, classical) 美
  - 조화와 비례, harmonia/symmetria
  - 완전무결한 완성: 크니도스의 비너스
- 미와 진의 관계: 미는 '진리'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잘 세계를 표현/해석한다.
- 미와 善의 관계: Eros는 미에 대한 동경을 매개로 선의 원동력이 된다.

☞ 미는 조화와 비례를 통해 마음/정신에 만족을 주는 것

# 예술 art

- 어원적 의미: 희랍어 *techne*, 라틴어 *ars*
  - 지성의 고안을 기초로 하여 유효한 결과를 낳는 활동
- 학예/인문학적 예술(*liberal arts*)
  -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 등 고도의 정신적 작업을 하는 기술을 의미
  - 오늘날의 교양교과에 해당
- 통속/장인 예술(*vulgares/mechanical arts*)
  - 식품제조술, 직조술, 건축술, 운반술, 의료술, 교역술, 군사술, 설비술, 공연술 등이 포함
  - 학예에 비해 신체적 노고를 필요로 하는 기술

# 예술 art

- 뮤즈적 예술(musical arts)
  - 음악
  - 예술을 작가의 ‘영감’을 실현시키는 활동이라고 간주할 때 의미하는 바의 예술
  - 플라톤은 뮤즈의 속삭임을 거짓을 뇌까리는 것이라고 생각
- 미적 예술(fine arts)
  - 근대 이후, 진정한 예술은 美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정립됨

# 참고: 뮤즈의 신들

- 뮤즈

-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 사이에서 태어난 신들
- 에우테르페(서정시), 멜포네메(비극), 클레이오(역사), 탈레이아(희극), 테르프시코라(합창/가무), 에라토(독창), 폴리힘니아(찬가), 우라니아(천문), 칼리오페(서사시) 등이 있음







IMAGEPOST www.ipost.kr

IMAGEPOST www.ipost.kr

IMAGEPOST www.ipost.kr

IMAGEPOST www.ipost.kr

IMAGEPOST www.ipost.kr

IMAGEPOST

IMAGEPOST www.ipost.kr

IMAGEPOST www.ipost.kr

IMAGEPOST www.ipost.kr









## 상기 작품들의 공통점은?

- 과연 아름다움은 조화와 비례에서 성립하는가?
- 과연 아름다움은 이성에 기초하여 감정에 만족시키는 것인가?
- 조화와 비례는 언제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전제한다.
- 이성과 감성/논리와 감정이 항상 그렇게 잘 구분되고, 또 양자의 관계는 항상 주종관계이어야 하는가?

#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적 표현

- 진리란 이성(로그스, 라치오)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 절대성, 불변성=단순성(부분을 갖지 않는 것)
- W. Benjamin: 아우라(aura)의 상실
- J-F. Ryotard: 현시할 수 없는 것의 현시(숭고)
  
- 미가 진리의 현시이고, 진리가 초이성적인 어떤 것이라면, 미는 조화와 비례라는 논리적/수학적 관점에서 표현될 수 없다.

# 플로티누스의 일자유출설

Plotinus' emanaton theory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of varying lengths and colors (teal, light blue, white) extending from the right side of the slide.

# 플로티누스의 엑스터시

## Plotinus' ecstasy

- 북아프리카 리코폴리스 태생(204-270)
- 어떻게 하나(Hen/the One)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세계(다수)가 생길 수 있는가?
- 저작: 엔네아데스(enneades)
- 일자 유출설, 신플라톤주의
- 살아생전 4번의 엑스터시(ecstasy)를 경험했다고 주장하였고,
- 분화구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신플라톤주의

- 만물의 근원을 일자(Hen/the One)라고 주장
- 일자란?
  -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근원적인 것
  - apeiron이 정교해진 철학적 개념
  - 근대에는 절대적 총체성(Totaity)라는 개념으로 전환됨 cf) totum과 compositum
  - 일종의 모순개념: 무한한 하나

★ 무한한 우주와 나

## 유출설 theory of emanation

- 일자 – 정신(nous) – 영혼(psyche) – 자연(physis)
- 영혼이 정신세계를 본 떠 자연(physis)을 만들었다고 함
- Eros
  - 일자로의 복귀에 대한 열망
  - 자연세계에서 일자의 흔적은 아름다움으로 인지되고, 영혼은 이를 관조(contemplation)하고,
  - 에로스는 이를 욕망한다.

최고의 쾌락은 어떤 쾌락인가?





# Ecstasy

- 영혼이 일자와 합일된 상태
- 자연적 자아를 벗어나야만 가능
  - 망아(忘我) 혹은 탈아(脫我)
- 최상의 쾌락 상태: 황홀경
  
- 미란 무엇인가?
  - 비례와 조화를 가진 감정상 만족을 주는 것인가?
  - 일자의 흔적(빛)으로 에로스를 추동시켜 최고의 쾌락, 즉 엑스터시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 ☞ 단순성, 광휘성, 감각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 ☞ 예술: 모방론을 벗어나 영감론 또는 창조론

# Ecstasy에 이르는 또 다른 길

송고 sublime



- [http://www.youtube.com/watch?v=mmCnQDU  
SO4I&feature=player\\_detailpage](http://www.youtube.com/watch?v=mmCnQDU<br/>SO4I&feature=player_detailpage)
- [http://www.youtube.com/watch?v=QRorA862V  
Cc&feature=player\\_detailpage](http://www.youtube.com/watch?v=QRorA862V<br/>Cc&feature=player_detailpage)
- [http://www.youtube.com/watch?v=veUJxETj7-  
c&feature=player\\_detailpage](http://www.youtube.com/watch?v=veUJxETj7-<br/>c&feature=player_detailpage)

# 숭고(崇高, sublime, erhaben)

- 장중한grave, 고양된elevated, 강하게 여겨지는 strongly conceived, 인상적인impressive
- 미와 반대되는 미학적 범주
- 롱기누스의 [peri hypsous]라는 책을 통해 서양에 알려짐
- 라틴어 limis, limus라는 말에서 유래
  - ‘사각으로 비켜 올라가는 응시의 어떤 방향’을 지칭하는 말

# 사선으로 비켜 올라가는 상승

- 상승
  -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
- 사선
  - 수직 상승과 대비
  - 상승에 고통과 좌절 등이 동반
- 신, 이념, 무한성, 총체성 등 vs 공포, 무력, 좌절 등의 긴박한 상호작용

# 롱기누스의 숭고론

- 롱기누스의 관심: 수사학

웅변이나 연설에 있어서 어떻게 청중들을 감동시킬 것인가?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오늘날 고도로 설득에 능하고 정치적으로 유능하며, 총명하고 재치있으며, 감미로운 연설에 매우 능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째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매우 숭고하고 압도적으로 큰 정신의 소유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 내겐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진다. 그와 같은 전세계적인 말의 궁핍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

- 수사학(rhetoric) vs 변증학(dialectic)

# 승고한 문체들

- 시각적 크기: 과장

“마치 한 사람이 망대 위에 앉아 ... 그 만큼 멀리 퍼졌다”

- 역학적 크기: 공포

“그러자 둥글고 큰 하늘과 올림포스의 온 땅이 진동하였다.”

## 승고와 정신의 크기

“포세이돈이 지나가자 그의 불멸의 발 아래서 높은 산들도 떨고 숲도 떨었다. ... 그가 파도 위를 달리니 큰 물고기들이 주인을 몰라보지 않고 모든 처소로부터 나와 그의 발 아래서 뛰어 올랐고 기쁨에 넘쳐 바다도 갈라섰다.”

☞ 유한자의 무한자에 대한 참여

그렇다면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 숭고와 정신의 크기

- “태초에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니라. ....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더라. 또 땅이 있으라 하시매, 땅이 생겼더라.”
- 존재와 무의 심연을 넘나들

# 최고의 수사학으로서의 송고

“위대한 글은 듣는 이를 설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ecstasy)으로 이끈다. 일반적으로 경탄할 만한 것은 정신을 뒤흔드는 힘을 통해 언제나 설득하는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을 능가한다. 설득하는 말의 효과는 대부분 듣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반면, 위대한 글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듣는 이를 압도하는 것이다.”

# 송고의 원천

- 후천적 원천
  - 생각과 표현의 어법(어휘)
  - 고상한 언어선택과 문체
  - 위엄 있고 고양된 문장구성
- 선천적 원천
  - 생각(noesis)에 있어서 큰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 강렬한 신들린 파토스(enthusiastikon pathos)

# 참고

- Enthusiasm = enthousiasmos  
en=into, thou=theos=god
  - into-the-God-ness
- Pathos ↔ Logos cf) Mythos
  - 정념
  - 쾌락/고통의 원천이 되는 인간 마음의 한 특질
  - ☞ 스토아 학파의 apatheia(아파테이아/부동심)

# 롱기누스 숭고개념의 근대적 전승

- 존재의 완전성: 신, 무한자
- 인간의 유한성과 초월 가능성
  - 정신의 크기 및 신들린 파토스
- 인간 인격의 선함 vs 존재(자연)의 악함
  - 일체의 악(자연적/사회적)을 물리치고 선의 크기를 흔들림 없이 보여줌